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한 해의 반이 넘었군요. 한 주가 막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새로 한 주가 다가오곤 합니다. 살 같은 光陰 가운데 동역자님의 경주의 삶에 알알이 열매가 맺혀가고 있으리라 짐작하며, 각처에서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게 해주신 그분을 찬미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위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맞춤형 가정학교가 올 봄에 다섯 주 일에 걸쳐 열렸습니다. 주일별로 ‘나의 정체성,’ ‘진정한 사랑,’ ‘행복한 가정 생활,’ ‘바람직한 취미 생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세’를 주제로 외부 가정사역팀의 연극, 강의, 조별 나눔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지 이런 프로그램과는 별 상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진 이, 자꾸 권고하니까 마지못해 참석한 이, 그 외에 호기심에 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복되고 참된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는 분위기였고, 섬김이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베풀어진 세족식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열게 만든 전기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자, 여기 저기서 뜨거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명의 참석자들 중 대부분이 신앙이 미약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나은 신앙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런 부조화의 문제를 조선족 사회에서 적잖이 접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조화 문제는 전세계 어느 족속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무신론과 유물론의 교육을 받았고, 급격한 자본주의화를 통과했고, 모든 것이 판이한 땅에 온 탓에 일탈 행동이 적잖이 발견됩니다. 이혼이 문화로 자리잡았고, 부유와 성공이 지상 과제이고, 술과 도박이 취미생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로간 심각하고 오랜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부부가 한 쌍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방적이며 가정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하고, 남편은 아내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 최후의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쟁을 치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 차례 상담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시일이 더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어 제 마음이 더욱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교우는 세례를 받고 얼마 뒤에 도박의 유혹에 다시 빠져 심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아울러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후자의 작업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4월 이후로 순(구역)이 두 개로 늘었습니다. 객지의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그들의 성의가 우선 고맙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답을 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교재가 깨끗(?)하지만, 이리 저리 말을 풀어서 대화를 유도하면 곧잘 반응을 합니다.

6월 말까지 두 달간 신약성경 통독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경을 차근히 읽어본 적이 없는 교우들이므로, 무엇보다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하고자 해서였습니다. 10명 정도가 신약을 완독하였습니다. 향후로는 당분간 일정한 시일 간격을 두고 성경읽기 행사를 함으로써 지루함을 줄이면서 구약까지 다 읽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경탐구40일” 교재를 가지고 주일 오후에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에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런던조선족교회에서도 동북아 두 나라에 있는 동족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그 현장에 이미 들어간 개인과 단체의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런던에 조선족

을 심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는 일링교회 청년부를 이끌고 보름 일정으로 케냐 outreach(단기선교)를 가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대부대인데, 고몽고(나이로비 빈민가), 케리초(케냐 북부), 렌키자페(마사이 종족지역)를 돌며 노방전도, 부흥회, 성경학교 등을 주관하며, 이번 달 18일에 돌아옵니다. 몇 달에 걸쳐 기도하면서 전력을 기울여 준비한 아웃리치이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데, 이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깊고 넓게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내의 지도 하에 일링교회 청년부원들은 작년 케냐/탄자니아 아웃리치 이후 각자 캠퍼스 사역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영국의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받고 본격적인 학원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캠퍼스 선교단을 만들어 런던 북판에서 정기적인 찬양과 말씀 집회를 통해 진리에 무관심한 영혼들,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민 1.5세대여서 문화나 언어 등에 있어서 국제화가 되어 있는 이 청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다변화된 런던, 그래서 선교의 전방이 된 이곳에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세게 진군할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다닌 London School of Theology(옛이름: London Bible College)에서 드디어 한 학년을 마쳤고 방학을 맞았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군요. 당초 생각보다 벅찬 과정이었는데, 공부와 건강에 은총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또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동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성이는 중학교 1년차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빈이는 올해 9월에 중학생이 됩니다. 오빠처럼 시험을 치러 합격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올 여름에 저희 식구가 한 명 늘어납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된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에 들어가서 최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셨고 도우셨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일 덕분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검사검사 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7월 23일 서울에 도착하여 8월 11일 영국으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의 원군이 있어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1. 저희들의 안과 밖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진실되며 그분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2. 런던조선족교회: 복음의 전파가 쉼 없이 진행되도록; 교우들이 거룩한 삶으로써 조선족 사회 내외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3. 일링교회 청년부: 케냐 아웃리치가 잘 진행되고, 런던의 캠퍼스 사역이 능력 있게 세워지도록
4. 입양: 수현이의 입양절차(호적, 여권, 비자 등)가 순착히 처리되고, 저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르도록
5. 동성 · 수빈이가 신앙 위에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동역자님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런던에서, 고석만 · 백경아 · 동성 · 수빈 드림

- 주소: 12 Voewood Close, New Malden, Surrey KT3 6PP, U.K.
- 전화: +44-(0)20-8949-4932 (집), +44-(0)7737-075-164 (고석만) +44-(0)7877-099-573 (백경아)
- 이메일: simeonko@naver.com, kaybaek@empal.com